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오후)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및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나와 남의 공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본질과 구조’ 부분에서 ‘문학의 유기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나와 남」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이성에서 관용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와 윤리’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분야의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용에 관한 편지』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읽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길잡이’의 과제로 나온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승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44~45쪽.
- [나] : 존 로크 저 / 최유신 역(2009), 『관용에 관한 편지』, 철학과현실사, 57~59쪽.
-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182쪽 관련.
- [다] : 신유식 외(2018),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308~310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존’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공존’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나와 남의 공존을 설명한 글이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남으로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각이다. 마찬가지로 두뇌는 똑같이 큰골, 작은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른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관용의 필연성을 설명한 글이다.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들어맞는 일이다. 하지만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거나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하며, 혹은 종교의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설명한 글이다. 인공 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또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은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공존’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존이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중 인물을 남으로 단정하면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남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얼굴과 두뇌를 지니고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관용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설명한 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인간의 이성에는 관용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복지와 법을 핑계로 잔인하게 박해하거나 종교의 미명 아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하면 이들은 공존할 수 없게 된다.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고통이고, 이러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체득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계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정확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기계와 공존할 수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3] “개인 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및 [12윤사 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 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 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및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5) 사회생활 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 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82~185쪽.
- [나] : 김 유 편(2003),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 인간과 사회, 19~21쪽.
-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0~201쪽 관련.
- [다] : 정창우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91쪽.
변순용 외(202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187쪽.
- [라] : 김왕근 외(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170쪽.
서범석 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165쪽.
김왕근 외(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170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5점)

[가]는 자유주의에 관한 글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므로 자 유와 권리를 제약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간섭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 나 자유주의의 가치 안에도 자율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내용 중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드 러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인 터내셔널의 강령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선언의 여러 방안 중, 제시문 은 경제 권력의 인민 소유, 사회 보장, 사회주의적 계획화, 노동 권력의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국민 주권과 권력 통제를 통해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국민 스스로 통치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이고,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특히 후자가 전체주의로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결단을 통해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이 언급되어야 한다.

◆ 채점 기준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로,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를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각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두 체제 가운데 하나만 설명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0~5점
 - [가]와 [다], [나]와 [다]가 결합한 두 체제를 모두 설명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6~15점

○ 문항 해설 2 (15점)

[라]는 노동법의 본질과 그 발생 근거를 설명한 글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든 민주 사회주의 체제이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하여 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그 탄생부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 보호 제도로서의 노동법 제정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물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권으로서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제정을 수용한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겪으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이를 무기력하게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 근로관계가 비록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공동선으로 여길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체제에서 [라]의 노동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노동법이 민주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노동법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이유를 논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와 국민 주권과 권력 통제를 통해 국민 스스로의 통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평등한 권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평등한 전체 인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강조한다.

[라]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 근로 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그 형성부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민의 해방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 보호 제도로서의 노동법 제정은 당연한 결과물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노동법은 수용된다. 근로관계가 비록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공동선으로 여길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제시문 [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딩크족 선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사례와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든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순서대로 각각 통합적 관점, 사회 통합, 의사소통과 사회적 담론, 재정, 세입, 경제적 유인을 설명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73쪽.
『서울경제』, 2019. 1. 20., 「[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경제] 저출산·고령화에……‘소비 감소→투자위축→저성장’ 악순환」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중앙일보』, 2019. 4. 2.,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 비율 1.33 사상 최저」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리얼캐스트』, 2020. 12. 9.,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 ‘펫 특화설계’ 주택 키워드 떠올라」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54쪽 관련.
- [나] : 『무역정보블로그』, 2017. 5. 26., 「독일 반려동물 3천만 시대, ‘펫코노미’ 시장을 주목하라」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54~55쪽 관련.
『더벨』, 2021. 2. 15., 「꺼져가는 신성장 불씨, 계륵인가 블루오션인가」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54~55쪽 관련.
- [다] : 『서울로컬뉴스』, 2018. 3. 20., 「반려인 VS 비반려인 갈등 해소방법 없나」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8쪽 관련.
- [라]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15쪽.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89~190쪽.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91쪽.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41쪽.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44쪽.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3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 [나], [다] 중 한 개의 현상만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가], [나], [다] 중 두 개의 현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4~6점
 - [가], [나], [다]에 나타난 현상을 모두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7~10점

○ 문항 해설 2 (30점)

[라]에 나타난 개념을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나타난 개념을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30점을 부여함
 - [라]에 나타난 개념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9점
 - [라]에 나타난 개념을 일부만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10~18점
 - [라]에 나타난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19~3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딩크족 선호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나]에 나타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한편, [다]에 나타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다]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은 주로 반려 문화의 미성숙과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반려인은 올바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제도 개선,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즉 반려인에게 펫티켓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펫티켓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자체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 복지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주민이 경험하게 되는 손실에 비례하는 보상이나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위한 예산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나 반려 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의 부과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